

영조 3년의 왕실사역에 참여한 각수 연구*

A Study on the Engravers Participated in the Royal Projects in the Year 1727

김 상 호 (Kim, Sang-Ho)**

◁ 목 차 ▷

1. 서 론	3.1 김수해와 유세홍
2. 교정청의 각수동원 문제	3.2 한업상과 엄필득
2.1 사역일정	3.3 윤세동 등
2.2 동원시점	4. 결 론
3. 주요 각수의 판각활동	<참고문헌>

< 초 록 >

본 논문은 영조 3년에 『선원계보기략』을 간행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교정청의 각수동원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같은 해에 진행된 두 가지 왕실사역, 즉 숙종실록의 간행 및 효장세자의 가례에 참여한 각수의 판각활동을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계보기략』에 대한 선행연구자가 미해결과제로 각수의 활동내용은 각수동원시점을 11월 3일이 아닌 10월 19일로 전제한 결과다. 둘째, 각수의 사역일자에 대한 교정청과 호조 간의 시비는 그 산정방식, 즉 일당제와 할당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교정청이 호조에 요구한 요미와 각수에게 분급한 요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조각장의 동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원계보기략』은 당초 그 간행에 필요한 각수들을 대부분 북한산성의 각수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교서관 각수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 넷째, 영조 3년에 벌어진 세 가지 왕실사역에 모두 참여한 각수는 유세홍으로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교서관 각수라 할 수 있는 김수해와 더불어 초기에 도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다섯째, 한업상은 훈련도감에 소속된 각수는 특히 석각과 옥각에 정통했고, 엄필득은 교서관과 어영청의 각수를 거쳐 금위영의 고자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의 인물로 드러났다.

要語: 각수, 선원계보기략, 김수해, 영조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7년 8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일
서지학연구, 제72집, 5-20,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5]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activities of 17 engravers who participated in the three major Royal projects carried out during the 3rd year of King Yeongjo, namely printing of *Sukjongsilrok*, the auspicious ceremony of Prince Hyojang, and printing of *Seonwongyebogiryak*. It especially centers on the issue of recruiting engravers by Gyojeongcheong during the printing of *Seonwongyebogirya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Yu Sehong, who joined all of the three projects, is notable as he worked as Dojajang in his early years with Kim Suhae, one of the most reputable engravers from Joseon Dynasty. Second, Han Eopsang was an engraver for Hunryeondogam, and was well-acquainted with stone and jade carving. Third, the unsolved problem on activities of engravers as suggested by preceding researcher related to *Seonwongyebogiryak*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cruitment was made on Oct. 19 instead of Nov. 3. Fourth, the differences in the calculation of working days and rice payment by Gyojeongcheong and Hojo resulted from the gap between daily-wage system and workload-quota system. The issue apparently resulted from jogakjeng's recruitment problems. Fifth, the project for *Seonwongyebogiryak*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carried out with monk engravers of Bukhansanseong, but it was later changed to be conducted mainly by engravers of Gyoseogwan.

Key words: engraver, *Seonwongyebogiryak*, Kim Suhae, Yeongjo

1. 서론

영조 3년(1727)에 교서관을 비롯해 훈련도감, 어영청에 소속된 각수들과 민간 각수, 그리고 북한산성의 각승들이 참여한 세 건의 왕실역사가 진행된다. 하나는 이미 경종 1년(1721)에 시작한 『숙종실록』의 편찬사업이다. 실록은 영조 3년 3월에 그 인출작업이 시작되어서 11월 3일에 일단락된다. 하지만 보컬할 부분이 생겨서 실록의 인출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한 것은 이듬해 3월의 일이다. 실록은 3월 26일 최종적으로 춘추관에 봉안된다.

왕실역사의 다른 하나는 영조 3년 9월에 진행된 효장세자의 가례이다. 이때 각수들이 수행한 일은 일방과 삼방에서 冊印을 새기는 것이었다. 왕실역사의 나머지 하나는 영조 3년 10월에 시작된 『선원계보기략』의 수정 및 간행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왕에게 책을 진상한 것은 그해 11월 26일의 일이다.

『선원계보기략』의 간행과정에 대해서는 윤인현 교수가 발표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그는 선행연구를 통해 영조 3년에 간행한 『선원계보기략』의 간행사업이 비교적 작은 규모로 간단한 작업이었으나, 그 진행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특별히 교정청이 付板正書가 완료되기 20일 전인 10월 19일에 북한산성 승장에게 감결을 보내서 각수 10명을 즉시 정송하라고 한 사실에 주목해 그 사이 각수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의문으로 남겨 놓았다. 11월 6일에 중초본의 어람이 있었고, 11월 9에 付板膠末이 부족하다고 해당 관아에 진배를 요구한 사실을 들어 그는 관각시점을 11월 9일로 판단하였고, 동원된 각수들이 20일 가까운 기간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¹⁾

해당 의뢰의 기록을 참고하면, 11월 9일에 교말을 요구한 것은 改張할 때 쓸 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관각시점을 11월 9일로 본 것은 그 전체가 잘못이다. 또한 각수를 정송하라고 감결을 보낸 10월 19일을 각수의 동원시점으로 판단한 것도 다소 무리여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원계보기략』을 간행하기 위한 교정청의 각수동원 문제를 각수의 사역일정과 동원시점으로 나누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각수동원이 여의치 않았던 당시 사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같은 해 진행된 두 가지 왕실사역에 참여한 각수들의 관각활동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들이 어떤 성격의 각수들이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1) 윤인현, “『璿源系譜記略』英祖3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56집(2013. 12), 198, 207, 210.

2)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9일. “今此璿源譜略改張時 付板膠末不足爲在 壹升當刻內進排事”

2. 교정청의 각수동원 문제

2.1 사역일정

영조 3년에 『선원계보기략』을 수정하면서 목관을 새로 만든 것은 범례 제5장과 선원세계 제32장, 제33장, 그리고 馨字張부터 容字張까지 14장 등 모두 17장이었다. 거기다 기존의 목관에 일부 글자만 수정한 것이 歲字張부터 知字張까지 16장이었는데, 그 글자 수는 모두 합쳐봐야 26자에 불과했다. 이때 모두 8명의 각수가 참여하였으므로 이를 똑같은 분량으로 할당하면 각수 1명당 2장씩 새기고, 조금 남는 정도의 소규모 작업이었다.

교정청은 11월 16일 호조에 문건을 보내서 분차산원이 장인들의 사역일자를 계산한 바에 따라 요미를 지불할 것을 처음 요구한다. 이때 해당 문건에 후록된 내용을 보면, 각수 8명이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씩 부여한 것으로 해서 80일치다. 당시 각수의 요미는 매일 쌀 2승씩이었다. 그런데 호조가 정작 보낸 요미는 각수 6명이 5일씩 부여한 것으로 해서 30일치다.³⁾ 무려 50일치가 꺾인 것이다. 이에 교정청은 12월 1일 호조에 문건을 보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그 내용은 이미 교정청의 낭청이 직접 호조에 가서 계산을 맞췄는데, 移文을 보내지 않고 덜렁 종이 한 장으로 각수 1명분만 더해서 지불한 것은 필히 분차산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바라는 것이다.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호조가 추가로 지불한 요미는 각수 4명이 5일씩을 부여한 것으로 해서 20일치다.

교정청이 각수에게 일차로 요미를 지급한 것은 12월 14일의 일이다. 그 분급한 내용을 보면, 각수 8명에게 각기 5일씩 계산해서 대미 6두 6승과 전미 3두 4승을 나누어준 것으로 나온다.⁵⁾ 결과적으로 보면 교정청은 일차적으로 호조에 80일치를 요구해서 50일치를 받고, 각수들에게는 그 중 40일치만 나누어준 셈이다.

교정청이 호조에 문건을 보내서 장인들이 11월 13일 이후에 사역한 일자에 따라 요미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은 12월 11일이다. 이때 해당 문건에 후록된 산정내용을 보면, 각수 8명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씩, 각수 4명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씩, 그리고 각수 1명이 11월 21일부터

3)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16일. “諸色工匠等實役日子 分差算員今已親執算摘乙仍于 關後錄爲去乎 同料米爲先依例相考上下輸送 俾更促之弊向事 (中略) 刻手捌名自十一月初三日同月十二日至各十日赴役 (中略) 刻手陸名各五日式三十日 (中略) 每日米貳升式”

4)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2월 1일. “頃日貴曹關于 諸色工匠等赴役日子 或全減或過半減省是乎所 莫重譜略修正之役 異於他役 決不宜如是減削 而本廳郎廳既自親檢貴曹 又爲算摘之後 貴曹終不回移 只以白文輸送記一張 刻手一名券加上下以送 此必是算員色吏等 不善告課之致 貴曹雖以經費爲慮 刻手捌名實役各拾日 而減其貳名 除其伍日 (中略) 戶曹加上下輸送 刻手肆名各加伍日式二十日”

5)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2월 24일. “諸工等料米分給記 (中略) 刻手捌名 各伍日式 大米陸斗陸升 田米參斗肆升”

28일까지 8일, 도합 36일치다. 『선원계보기략』이 완성되어서 진상된 이후의 날짜까지 포함이 된 것은 목판의 마무리 작업, 즉 구판을 고쳐서 준삭보공한 일의 뒷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호조가 보낸 요미는 각수 5명이 2일씩 10일, 각수 4명이 3일씩 12일, 각수 1명이 8일, 도합 30일치다.⁶⁾ 당초 교정청이 요구한 것보다 6일치가 깎인 것이다.

교정청이 각수들에게 이차로 요미를 분급한 것은 12월 27일의 일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각수 10명에게 각기 3일씩 대미 4두, 전미 2두를 나누어준 것으로 나온다.⁷⁾ 난데없이 각수 2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전체적으로 교정청이 호조에 118일치 요미를 요구해서 80일치를 받고, 각수들에게 70일치를 지급한 이상의 내용을 교정청의 관점에서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1월 16일 호조에 요미 1차 요구: 8명×10일(11.3~12)=80일 분량
- 2) 11월 16일 이후 12월 1일 이전에 호조에서 요미 1차 도착: 6명×5일=30일 분량
- 3) 12월 1일 호조에 요미 2차 요구: 다시 산정한 분량
- 4) 12월 1일 이후 12월 13일 사이에 호조에서 요미 2차 도착: 4명×5일=20일 분량
- 5) 12월 11일 호조에 요미 3차 요구: 8명×2일(11.13~14) + 4명×3일(11.19~21)+1명×8일(11.21~28)=36일 분량
- 6) 12월 14일 각수에게 1차 분급: 8명×5일=40일 분량
- 7) 12월 14일 이후 12월 27일 이전에 호조에서 요미 3차 도착: 5명×2일+4명×3일+1명×8일=30일 분량
- 8) 12월 27일 각수에게 2차 분급: 10명×3일=30일 분량

각수 개인이 실제 일한 날짜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분하지 않고, 각수들에게 같은 양의 요미를 지급한 것은 실제 각수들이 교정청에 와서 일한 날짜보다는 그들이 교정청에 와서 일한 양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각수들에게 지급된 요미는 그 산정근거가 일당제가 아니라 할당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교정청과 호조 간에 산정내용을 놓고 작은 시비가 있었던 것은 그 전제 하에 고려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호조는 다른 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각수도 일당제로 그 요미를 정확하게 산정하고자 했을 것이고, 교정청은 어떻게 해서든 각수들에게 동일하게 할당된 양에 따라 동일한 요미를 지급하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濬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2월 11일. “十一月十二日以前料米爲先上下事 前已移文爲有在果 又自十一月十三日以後實役日子 亦依次知算員親執算摘 關後錄以送爲去乎 磨鍊上下爲乎矣 譜略子孫錄小註中可改處改刻乙仍于 舊板子鐫削補孔開刊矣 因傳教補孔處 勿爲改修 故同補孔改刻處 還爲鐫削補孔 依前開刊是乎等 以寫字官及小木匠刻手蹄刻匠等段 進上後連爲赴役爲有置 同料米并以上下向事 (中略) 刻手捌名十一月十三日至十四日 各二日 又肆名自十一月十九日至二十一日 各三日 又壹名自十一月二十一日至二十八日 實役八日 (中略) 刻手伍名各二日式十日 又肆名各三日式十二日”

7) 『濬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2월 27일. “諸工等料米分給 (中略) 刻手拾名各三日式 大米肆斗 田米貳斗”

전체적으로 각수들에게 왜 10일치가 덜 지급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각수들에게 이차로 요미를 분급할 때 10명의 각수에게 3일치씩 요미를 줬다는 부분은 어차피 소수의 각수가 11월 21일 이후 28일까지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봐도 맞지 않다. 다른 2명의 각수가 실제 추가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어쩌면 2명의 각수가 3일씩 6일치 요미를 더 받아가고, 이를 10명의 각수가 일한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사역일정을 통해 확인이 되는 중요한 사실은 11월 3일부터 각관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됐고, 진상이 끝난 뒤에 마무리 작업이 있었다는 점이다.

2.2 동원시점

교정청이 처음 호조 등에 감결을 보내서 13명의 각수에게 필요한 대상 5부와 오촌정 26개, 삼촌정 26개 등을 요구한 것은 10월 19일의 일이다.⁸⁾ 같은 날 교정청은 북한산성 승장에게 감결을 보내서 솜씨 좋은 각수 10명을 즉시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⁹⁾ 그 내용은 각역의 일이 잠시 급한데, 도서관의 각수가 원래 적어서 보잘 것이 없는데다가 실록청과 도서관에 맡은 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두세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애당초 『선원계보기략』을 새기기 위해 교정청에서 필요한 각수를 13명으로 정하였고, 북한산성에서 각수를 10명 충당할 계획이었으니, 도서관 등에서 동원의 각수는 당초 3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뢰를 참고하면, 당시 실록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던 도서관의 각수는 유이석과 유세홍이다.¹⁰⁾ 두 사람은 같은 해 벌여졌던 효장세자가례의 일에도 참여해서 각수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 다만 『선원계보기략』의 일에는 유세홍 한 사람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1월 초에 실록의 인출작업에 일단락되었으므로 그가 교정청 일에 가세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었던 듯하다. 유이석은 효장세자가례의 일에 참여한 각수 중에서 그의 이름이 맨 앞에 기재된 인물이다.

10월 19일 교정청은 상의원과 내수사에 별도의 감결을 보내서 조각장 2명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그 내용 중에는 만약 과거처럼 즉시 거행하지 않으면 해당 서리가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문도 포함이 되어 있다.¹¹⁾ 그런데 관련 의뢰의 공장질을 참고하면, 어떤 일인지 조각장의 명단은 나와 있지 않다. 조각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숙종실록찬수청의뢰』를 들여다보면, 각수 1명이 능화관을 조각하기 위해 8일, 조각장 1명이 책제목판을 조각하기 위해 하루 사역했다는

8) 『瑤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0월 19일. “刻手拾參名所用 臺床伍部 臺床布各貳尺貳拾陸尺 伍寸釘貳拾陸介 參寸釘貳拾陸介 校正釘參介 月刀參介 馬赤參介 木賊壹斤 掃省次家猪毛半斤 沈釘次炭貳斗”

9) 『瑤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0월 19일. “校書館刻手元數零星 而即今實錄都監及本館赴役外所餘 不過二三名 是如乎 本漢善手刻手拾名 到甘結即時定送事”

10) 『肅宗實錄纂修廳儀軌』 1731. 印役工匠 “刻手二名 劉二石 柳世興”

11) 『肅宗實錄纂修廳儀軌』 1731. 10월 19일. “今此瑤源譜略修正時 事役浩多 雕刻匠貳名 又爲定送爲乎矣 若有如前不即舉行之弊 則該吏等難免重罪 除尋常惕念舉行事”

내용이 있다.¹²⁾

교정청에서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 조각장 2명을 동원하려고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10월 29일 다시 상의원과 내수사에 감결을 보내서 조각장을 보내라고 요구한다.¹³⁾ 급기야 11월 4일에는 상의원과 내수사에 감결을 보내서 조각장 2명을 정송하라고 요구하고, 지체하면 해당 서리를 수금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는다.¹⁴⁾ 교정청은 11월 7일 호조와 선공감에 문건을 보내서 조각장이 필요로 하는 도구들을 진배하라고 요구한다.¹⁵⁾ 일의 맥락으로 보아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공장질에 명단이 없는 것이다. 앞의 사역일정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각장이 교정청에서 각수에게 2차로 요미를 분급할 때 인원이 10명으로 산정된 것, 또는 호조에서 받은 요미와 각수에게 지급한 요미가 10일치 차이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 조각장이 수행한 일은 보공작업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영조 12년(1736)에 『선원보략』을 간행할 때 목관을 보공하기 위해 소목장이 쓸 어교를 진배하라는 내용이 있는 바,¹⁶⁾ 조각장과 소목장이 수행한 일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정청은 10월 29일 교서관과 관상감에 감결을 보내서 각수 10명과 각수 2명을 보내라고 요구하고,¹⁷⁾ 북한산성 승장에게 따로 감결을 내서 이전 題辭에 기입된 인원수만큼 모습을 드러낼 것을 지시한다.¹⁸⁾ 그런데 같은 날 교정청이 관상감에 낸 별건의 문서를 보면, 方書를 새기는 일로 관상감에 가 있는 북한산성의 승각수 인호, 쌍민, 쾌책을 도감의 일이 잠시 급하니 보내라고 적시되어 있다.¹⁹⁾ 같은 날 관상감에 요구했던 2명의 각수가 북한산성에서 와서 일하고 있던 각승이 아니라 본래 관상감에 소속된 각수였음이 분명하다.

교정청은 11월 5일 호조 등에 감결을 내서 8명의 각수가 엄동을 맞아 화로가 없이 사역할 수 없으니, 매일 숯 5승씩을 진배하라고 요구한다.²⁰⁾ 당초 13명이었던 각수의 동원계획이 이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8명으로 축소되고 확정되었던 듯하다.

교정청은 11월 9일 호조 등에 문건을 내서 승각수 2명이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게 뿔감을 매일 한 단씩, 그리고 식찬으로 감자, 간장, 소금을 11월 초4일부터 사역이 끝날 때까지 진배하고, 사발,

12) 『肅宗實錄纂修廳儀軌』 1731. 4월 1일. “菱花板彫刻次 刻手一名 八日實役 冊題目板彫刻次 彫刻匠一名 一日實役”

13)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0월 29일. “校書館刻手拾名 觀象監刻手貳名 內需司雕刻匠貳名 尙衣院雕刻匠貳名等乙 各其色吏等領來”

14)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4일. “雕刻匠之役 甚爲浩煩是如乎 雕刻匠貳名 又爲定送爲乎矣 若或遲緩 則該吏等囚禁事”

15)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7일. “雕刻匠所用 二分助伊四分助伊錯各壹介 童申鐵貳介等物 用後還下次 當刻內進排事”

16) 『璿源譜略改張儀軌』 1736. 6월 8일. “舊板子補孔時 小木匠不足魚膠壹張等物 進排事”

17) 주 25 참조.

18)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0월 29일. “本漢僧刻 依前題辭名數 領來現身事”

19)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0월 29일. “北漢僧刻手仁好雙敏快策等參名定送事 捧甘於北漢 則僧將所告內 此刻手參名方書刻役次 觀象監定送是如爲有置 都監役事一時爲急 此刻手參名色吏領來現身事”

20) 『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5일. “當此嚴冬 刻手八名逐日赴役時 不可無火爐是去乎 每日炭伍升式 限畢 役進排事”

보시기, 유지 등은 사용 후 돌려주는 걸 조건으로 즉시 진배할 것을 요구한다.²¹⁾ 각승이 이미 도착한 후에 뒤늦게 문건이 나간 셈인데, 이때 교정청에 온 각승들이 의궤 공장질에 이름이 나오는 설순과 인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관상감이 11월 16일 교정청에 올린 첩보를 보면, 북한산성의 승각수 인후, 쌍민, 쾌책을 기송할 테니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관상감에 돌려보내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²²⁾ 각승 인후가 관상감과 교정청을 수시로 오가면서 일을 했는지, 쌍민과 쾌책이 과연 기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 의궤에 등록된 수취문서는 발송문서와 달리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³⁾

교정청이 10월 29일 관상감에 감결을 낼 때 기입된 각승 인후는 인후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기입의 오류라면 그건 실제 사람이 와서 일하고 있는 관상감보다 문건을 참고해서 작성한 교정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11월 16일 북한산성의 승장이 올린 첩보에 근거하면, 이때 북한산성에 있는 승각수는 5~6명에 불과했는데, 그 중 3명이 관상감에서 일하던 중이었고, 2명은 걸량 차 외방에 출거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1명은 생사가 구분이 안 되는 위독한 상태였다.²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의궤에 이름이 기입된 인후는 관상감에서 사역하던 각승이었고, 설순은 걸량 차 외방에 간 각승이었으며, 그들이 11월 19일에 시작된 2차 판각작업에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3. 주요 각수의 판각활동

영조 3년에 벌어진 세 가지 왕실사역에 참여한 각수의 인원은 『숙종실록』의 경우 일차에 2명, 이차에 1명, 도합 3명이고, 효장세자가례의 경우 일방에 6명, 삼방에 10명이나 중복된 인원 4명을 제하면 12명이며, 『선원계보기략』의 경우는 8명이다. 연인원 23명에 달하는 세 가지 왕실사역의 각수 중에서 중복된 인원을 제하면 19명의 개별 각수가 각각의 사역에 참여한 셈이다. 그 가운데 2명의 각승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은 관아에 소속된 각수이거나 민간 각수다. 당대 의궤들을 통해

21) 『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9일. “僧刻貳名炊飯次 燒木每日壹丹式 食饌甘藿每名每日貳立式 甘醬每名每日貳合式 鹽每名每日參夕式 依前例自今月初四日爲始限畢役進排爲跡 沙鉢貳立 甫兒貳介 鑰匙貳介等物 用後還下次 當刻內進排事”

22) 『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16일. “北漢僧刻手仁厚雙敏快策等 當刻內起送亦爲有知乎 本監役事亦爲萬分緊急是乎矣 貴廳譜略修正事體 與他自別乙仍于 本監役事段 姑爲停止 上項僧刻等參名 依捧甘起送爲去乎 貴廳畢役後 卽即還送以爲完役之地向事”

23) 김상호, “肅宗實錄儀軌의 本廳文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2집(2012. 9.) 143.

24) 『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1월 16일. “本漢僧刻元數 近來甚爲零星 不過五六名內 三名段頃者因觀象監甘結 既已定送爲有遣 二名段乞糧次 出去外方 時未還來是遣 一名段卽今身病危篤 方在死生未分中是乎等 以勢難起送 茲以再次舉實論報爲去乎 參商事勢教是 後俾無如前 催促之弊向事”

확인이 된 이들 각수들의 활동사실과 각수질에서의 각수명 기입순서, 그리고 그들이 소속됐던 관아 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각수의 판각활동 및 각수명 기입순서

연도	의례	인원	이영립	한업상	윤세동	유세홍	김수해	이두삼	유이석	박세만	김만석	박수만	유극창	엄필득	김승창	김해중	정애남
1696	景宗端懿王后 嘉禮都監儀軌	3							1								
1701	仁顯王后國葬 都監儀軌	18		11													
	仁顯王后魂殿 都監儀軌	1		1					1								
1718	王世子嘉禮時 都監儀軌	3	3 교		2 교							1 교					
	愍懷嬪復位 宣諭都監儀軌	8		5				4									6
1720	肅宗國葬 都監儀軌	8		2													
		21		16		도	도		7						15	13	
1721	英祖王世弟 册禮都監儀軌	9		7	4				3 교		2 교	5 교					
		4		4 훈											2 사	1 사	
1724	景宗國葬 都監儀軌	26		3	14	17	13							7	6	18	4
1725	孝章世子册禮 都監儀軌	2		1 훈													
		8			5 교	7 교	8 교					3 교		4 교			
1726	景宗端懿王后 祔廟都監儀軌	6		6												2	4
1727	塔源謚略 修改時儀軌	8	1	2	3	4	5	6									
	肅宗實錄 纂修聽儀軌	2				2			1								
		1								1							
1729	奮武錄動 都監儀軌	6	3 교		2 교		4 교				1 교	5 교	6 교				
		10		6 훈	4 교	2 교		1 교			3 교	5 교	6 어	8 사	9 사	10 사	
1730	宣懿王后國葬 都監儀軌	3			1												
		15		3 훈	11									5	2 사		6
1731	景宗大王 實錄謄錄	13		6	12												10
1731	景宗大王 實錄謄錄	2				2											
1732	宣懿王后祔廟 都監儀軌	2					2										
1735	賢嬪玉印造成 都監儀軌	2		1 훈													
1736	思悼世子册禮 都監儀軌	2		1													
		8					3 교										
1739	端敬王后復位 祔廟都監儀軌	13					5								4		7

연도	의례	인원	이영립	한업상	윤세동	유세홍	김수해	이두삼	유이석	박세만	김만석	박수만	유극창	엄필득	김승창	김해중	정애남		
1740	仁元王后英祖 貞聖王后尊崇 都監儀軌	3																3	
		14					7 교								3			5	
		19					4 교									3 교			10 교
	孝宗加上謚號 都監儀軌	18					1 교	13							2			3	
1747	仁元王后尊崇 都監儀軌	2																	1
		11																	1 교
1751	懿昭世孫冊禮 都監儀軌	16			1														
	濬源譜略修正 時宗簿寺儀軌	25			1														
	仁元王后尊崇 都監儀軌	13					1 교												2 교
1752	仁元王后英祖 貞聖王后尊崇 都監儀軌	13					2 교												1 교
		4																	4
1755	仁嬪上謚封園 都監儀軌	9					1												
	仁元王后淑嬪 英祖貞聖王后 尊崇都監儀軌	19					1 교												
	豊壤舊闕遺址 碑石豎立儀軌	5					1												
1757	仁元王后國葬 都監儀軌	5					1												
	貞聖王后國葬 都監儀軌	5					1												
1759	英祖貞純王后 嘉禮都監儀軌	19					1												
	正祖王世孫冊 禮都監儀軌	15					1												
1762	正祖孝懿王后 嘉禮廳儀軌	16					1 교												
1770	神德王后貞陵 營建廳儀軌	7					1												
1772	淑嬪上謚 都監儀軌	17					2 교												
	顯宗明聖王后 英祖貞聖王后 貞純王后上號 都監儀軌	27					1 교												

* 교: 校書館, 훈: 訓練都監, 어: 御營廳, 사: 私匠, 도: 刀子匠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7명의 각수 가운데 세 가지 왕실사역에 모두 참여한 각수는 유세홍 한 사람이다. 두 가지 왕실사역에 참여한 각수는 이영립, 한업상, 윤세동, 김수해, 유이석 등 다섯 사람이고, 효장세자가례도감의 일방과 삼방의 일에 겹치기로 참여한 각수는 윤세동, 박수만, 유극창 세 사람이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수의 각수가 도서관에 소속된 각수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는 私匠이며, 훈련도감이나 어영청에 소속된 각수로 활동한 사람은 소수다.

참고로 각수는 교정청에서 『선원계보기략』을 수정할 때 그 일에 참여한 설순과 이후 두 사람뿐이다. 설순은 1739년의 의궤에 2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인호도 마찬가지다.²⁵⁾ 인호는 1727년에 『선원계보기략』을 간행할 때, 관상감에서 方書를 판각하고 있는데 도감에 보내겠다고 보고한 인호와 비록 한자표기는 다르지만 동일인물로 보인다. 인호가 이후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당시 인호와 함께 보내기로 한 쌍민, 쾌책은 그 이름이 각수질에 기입되어 있지 않다.²⁶⁾ 쌍민과 쾌책 두 사람은 1721년에 경기도 양주 중흥사에서 『천지명양수륙제의범음산보집』을 개관할 때 참여한 21명의 각수 중 한 사람들이다.²⁷⁾ 당시 여러 의궤들을 통해서 그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몇 사람의 각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김수해와 유세홍

김수해는 당대 왕실사역에 가장 많이 참여한 각수다. 그 이름이 의궤 각수질에 23차례 나온다. 그의 활동 시기는 1720년부터 1772년까지 무려 52년간이나 된다. 이름의 한자 표기가 金壽海가 아닌 金守海로 기재된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동료 각수들과 이름이 기입된 순서, 양상으로 봐서 동일 인물임이 분명하다.

각수로서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24년의 『경종국장도감의궤』에서다. 이때 그의 이름은 26명의 각수 가운데 열세 번째에 기입되어 있다. 그의 이름이 의궤에 처음 등장한 것은 그보다 4년이 빠른 1720년 숙종국장도감 때의 일이다. 이때 그가 맡은 역할은 각수가 아닌 도자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14명의 도자장 가운데 일곱 번째에 나온다.²⁸⁾ 도자장은 작은 손칼을 만드는 장인이다. 김수해와 함께 도자장으로 그 이름이 기재된 유세홍은 후일 김수해와 함께 각수로 일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도자장 김수해, 각수 김수해가 동일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김수해와 유세홍이 원래 도자장이었는데, 나중에 각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젊은 각수로서 스무 명이 넘는 각수들에게 각도를 마련해주는 도자장의 역할을 그들이 수행하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수해는 비록 위의 표에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1736년에 작성된 『선원보략개장의궤』의 특정 문건에서 그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를 포함해 몇 사람의 장인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는데,²⁹⁾ 해당 의궤에 공장질이 없어서 그가 실제 동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의 문건을 보면 각수 열 명

25) 『濬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4월 21일. “刻手拾名起送亦教是乎矣 本城刻手元來六名中印浩雪淳等 再昨年身死是遺”

26) 『濬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10월 29일. “北漢僧刻手仁好雙敏快策等參名 定送事捧甘於北漢 則僧將所告內 此刻手參名方書刻役次觀象監定送是如爲有置 都監役事一時爲急 此刻手參名色吏領來現身事”

27)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236, 257.

28) 『肅宗國葬都監儀軌』 1721. 工匠秩 “刀子匠朴絡先金次重池興石白瑞琪安世云柳世興金守海宋漢彬成昌都李希太尹三奉黃仁男全英彬林順昌”

29) 『濬源譜略改張儀軌』 1736. 4월 25일. “刻手金壽海豆錫匠趙富業及屏風匠多繪各壹名等限畢役定送事”

가운데 두 명은 솜씨가 떨어져서 줄인 기록이 있는데,³⁰⁾ 전후 사정으로 봐서 그 두 명이 교서관에 소속된 각수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 각수질의 중하위권에 머물던 김수해 이름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간 것은 1740년의 일이다. 이때를 전후해서 유세홍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1750년을 전후해서 김수해는 정애남과 선두자리를 나누어 차지한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김수해라는 이름은 두 번째에 기입된 단 한 차례를 빼고, 열 차례 모두 맨 앞에 나온다. 왕실사역이 많았던 영조 재위 중·후반기에 김수해는 교서관의 원로 각수로서 판각의 일을 주도했던 인물로 평가받을 만하다.

유세홍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20년에 김수해와 함께 도자장으로 숙종국장의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1724년에는 김수해와 함께 각수로 경종국장의 일에 참여한 적이 있다. 표에 기입된 17명의 각수 가운데 유일하게 두 번 실록 간행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걸로 봐서 목활자를 잘 새긴 인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교서관에 소속된 각수로서 그의 이름은 주로 중위권에 기입되어 있으나, 1727년에 벌어진 세 가지 왕실사역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2 한업상과 엄필득

한업상은 1701년부터 1735년까지 14건의 왕실사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한자 표기가 韓業相이 아닌 韓業尙으로 표기된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각수들이 대부분 교서관 소속인데 반해 그는 훈련도감 소속으로 국장도감이나 훈전도감, 부묘도감, 옥인조성도감 등 일에 참여한 사실이 많다. 해당 도감의 일의 특성으로 봐서 석각이나 옥각에 남다른 솜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1721년 왕세제책례 때는 역시 훈련도감 각수로서 김해중, 김승창, 문덕화 등 세 명의 私匠과 더불어 玉印을 새겨낸 사실이 있다.

엄필득은 이름의 한자 표기가 嚴必得이 아닌 嚴弼得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가 왕실사역에 참여한 시기는 1724년부터 1730년까지로 비교적 짧다. 확인된 것은 네 차례에 불과하다. 그의 소속을 보면 1725년에는 교서관, 1727년에는 어영청으로 나온다. 1739년의 의궤를 참고하면, 그는 당시 금위영에서 庫子의 일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금위영에 보낸 감결에서 엄필득이 각수를 엄으로 삼고 있으므로 비록 庫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庫子에게 맡기고 즉시 기송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³¹⁾ 해당 의궤에 각수질이 없어서 그가 실제 사역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30) 『璿源譜略改張儀軌』 1736. 6월 초6일. “刻手拾名內貳名段 手拙不可役事 故五月二十三日減下”

31) 『璿源譜略改修正時校正廳儀軌』 1739. 5월 17일. “聞貴營庫子嚴必得刻手爲業云 雖行庫子之役 他庫子兼察是遣 卽爲起送以爲使役之地向事”

3.3 윤세동 등

윤세동은 1718년부터 1751년까지 사이에 모두 10건의 왕실사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의 한자표기가 尹世東이 아닌 尹世同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교서관 소속으로 그의 이름은 초기에 주로 각수질의 중간 부분에 기입되어 있으나, 1750년의 의소세손책례 때는 16명의 각수 중 맨 앞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1751년의 선원보략 수정 일로 25명에 이르는 각수들의 賞格이 1등으로 분류될 때에는 그의 이름이 대표로 실리기도 했다. 당시 원로각수로 행세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의례의 1751년 2월 5일자 북한총섭 첩보를 참고하면, 각승 탄기와 흥연, 거안은 고향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각승은 약륙, 거원, 방규, 금활, 유백, 여한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교서관에 등록된 각수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윤세동을 필두로 해서 박시창, 우정필, 안세언, 류도창, 박운수, 류대창, 김수해, 한복만, 리시대, 박원세, 박운수, 원홍부, 원홍도, 송덕재, 전돌몽, 김필운, 김천탁, 지한상, 김수장, 류국창, 김광엽, 김수태, 김치학, 강개동 등 25명이다.³²⁾ 1727년에 선원보략을 수정 때와 비교하면 북한산성과 교서관의 각수인원은 대부분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이석은 표에 수록된 각수들 가운데 왕실사역의 참여시기가 가장 앞선 인물이다. 1696년부터 1727년까지 모두 8건의 의례에서 그의 이름이 보인다. 1727년에 벌어진 2건의 사역에서 그의 이름이 맨 앞에 기입이 되었다. 이름 한자 표기는 劉二石이 아닌 柳二石으로 표기된 예가 있다.

정애남은 1718년부터 1752년까지 11건의 왕실사역에 참여한 각수다. 초기에 그가 민간 각수로 활동할 때는 각수질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했지만, 1750년을 전후해서 교서관의 각수로 활동할 때는 김수해, 윤세동 등과 더불어 상위권을 형성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영립은 1727년에 간행된 『선원계보기략』의 각수 8명 가운데 그 이름이 선두에 나오는 인물이다. 맨 처음 1718년 가례도감 일에 교서관 소속의 각수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 한자 이름은 李永立인데, 효장세자가례 때 교서관에 소속된 각수로 참여한 바 있는 李承立과 동일 인물이 아닌지 의심된다. 각수 이름 중에는 형제일 것으로 판단되는 劉克昌, 劉大昌, 劉道昌과 같은 예가 적지 않은데, 각수 李承立의 이름이 다른 의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더욱 그러하다.

32)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1751. 2월 5일. “璿源譜略改刊次 刻乎等盡數起送亦教是乎矣 本城刻乎元來數少之中 僧刻手坦機弘演巨安段 令前出往于其矣故鄉 而尙未還來是乎等 以時存刻手後錄上送爲臥乎事 僧刻手若勒巨源芳圭錦活幻白呂閑 校書館時存案付刻手 尹世東朴時昌禹鼎弼安世彥劉道昌朴云壽劉大昌金壽海韓福萬李時泰朴元世朴雲秀元興富元興道宋德才全芴夢金必云金天鐸池漢尙金壽章劉國昌金光燁金壽泰金致學姜介同”

4. 결 론

영조 3년에 벌어진 세 가지 왕실사역에 참여한 각수에 대해 새롭게 밝힌 사실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계보기략』의 선행연구자가 후속연구과제로 남긴 각수의 활동 시점은 10월 19일이 아닌 11월 3일 또는 4일이고, 이때부터 중초본의 어람이 있던 11월 6일까지 2명의 승각수가 수행한 일은 각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시 『선원계보기략』의 판각작업은 8명의 각수가 각기 2장씩 새기면 1장, 그리고 26개의 글자가 남는 결코 많지 않은 분량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청과 호조 간에 각수의 사역일자를 놓고 시비가 붙고, 산정내용이 다르게 나온 것은 일당제와 할당제, 즉 각수의 일을 일한 날짜를 놓고 산정한 방식과 각수가 일한 분량을 놓고 산정한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원계보기략』의 판각작업에 참여한 각승 인후는 관상감에서 방서를 판각하던 중에, 그리고 설순은 결량 차 외방에 갔다가 11월 19일부터 진행된 2차 판각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서관의 각수 중에 숙종실록의 간행사역을 마치고 참여한 인물은 유세홍이다.

넷째, 교정청에서 요구한 조각장을 상의원과 내수사가 보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들이 동원되었다면 목판의 보공 일을 맡고, 각수에게 할당된 요미를 따로 지급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왕실사역에 참여한 각수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17명이다. 그들 중 세 가지 사역에 모두 참여한 각수는 유세홍 단 한 사람인데, 그는 김수해와 함께 초기에 도자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김수해는 왕실사역이 많았던 영조 재위 중후반기에 교서관의 원로 각수로 목판의 개판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여섯째, 각수 한업상은 1701년부터 1735년까지 모두 14건의 왕실사역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훈련도감 소속의 각수다. 특별히 석각과 옥각에 정통했던 인물로 판단된다. 각수 엄필득은 1725년에 교서관 소속의 각수, 1727년에 어영청 소속의 각수, 1739년에는 금위영에서 각수가 아닌 庫子로 일한 특이한 이력의 인물이다.

일곱째, 각수 윤세동은 1718년부터 1751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왕실사역에 참여한 인물이고, 각수 유이석은 17명의 각수 가운데 왕실사역의 참여시기가 가장 앞선 인물이다. 1696년부터 1727년까지 모두 8건의 의궤에서 그의 이름이 보인다. 각수 정애남은 초기에는 민간의 각수였으나, 1750년을 전후해서는 교서관의 각수로서 김수해, 윤세동과 선두그룹을 형성한 인물이다.

<참고문헌>

- 『景宗國葬都監儀軌』 1724.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1696.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 1726.
『景宗大王實錄瞻錄』 1732.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1739.
『愍懷嬪復位宣謚都監儀軌』 1718.
『奮武錄勳都監儀軌』 1729.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 1736.
『睿源譜略改正時校正廳儀軌』 1739.
『睿源譜略修改時儀軌』 1728.
『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1751.
『睿源譜略改張儀軌』 1736.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1731.
『宣懿王后祔廟都監儀軌』 1732.
『淑嬪上謚都監儀軌』 1772.
『肅宗國葬都監儀軌』 1721.
『肅宗實錄纂修廳儀軌』 1731.
『神德王后貞陵營建廳儀軌』 1770.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 1721.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1759.
『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1718.
『懿昭世孫冊禮都監儀軌』 1751.
『仁嬪上謚封園都監儀軌』 1755.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1757.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1756.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1740.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1747.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1751.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1752.
『仁顯王后國葬都監儀軌』 1702.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1702.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 1757.

『正祖王世孫冊禮都監儀軌』 1759.

『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 1762.

『豐壤舊闕遺址碑石豎立儀軌』 1755.

『賢嬪玉印造成都監儀軌』 1735.

『顯宗明聖王后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上號都監儀軌』 1773.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 1740.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1727.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1725.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김상호. “肅宗實錄儀軌의 本廳文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2집(2012. 9). 137-153.

윤인현. “『璿源系譜記略』 英祖3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56집(2013. 12). 185-212.